

물을 해준 셈이군요.

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그 나무를 품에 안고 정열적으로 키스를 퍼부었다네.

## 노인

세상 가장 훌륭한 책이라며 평등과, 우정과, 자비와, 화합만을 설교하는 복음서마저 수세기 동안 유럽인들의 광기에 발미를 제공해왔지. 공사를 막론하고 이 지구상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폭정이 복음서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가! 이런 마당에 과연 누가 책이 인류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자부하겠나? 지혜를 설파했던 철학자 대부분의 운명이 어땠는지 떠올려보게. 그토록 유려한 시구로 지혜에 옷을 해 입혔던 호메로스는 평생 동냥이나 하며 살았지. 연설을 통해서도 행실을 통해서도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토록 어진 교훈을 주었던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아 독살당했어. 그의 수제자였던 플라톤은 자기를 비호해주던 바로 그 참주의 명령에 노예로 팔려갔고, 이들보다도 앞서, 짐승에게까지 널리 자비를 베풀었던 피타고라스는 크로톤 사람들의 손에 산 채로 불태워졌네. 어디 그뿐인가? 명성이 자자한 이 인물들은 그마저도 뽀얀 특징을 따와서 악의적으로 풍자한 모습으로 왜곡된 채 우리에게 전해지고, 배은망덕한 인간은 거기서 그들을 알아봤다며 기뻐하곤 하지. 그런데 그린 틈바구니에서 뽀얀 이들의 명예가 우리